

여성과 왕국: 『아서왕의 죽음』의 귀네비어와 모르간 르 페이를 중심으로*

최 예 정

호서대학교

I.

모드레드(Mordred)의 반란, 아서왕의 죽음으로 왕국은 해체되었다. 왕비 귀네비어(Guenevere)가 속죄를 위해 수녀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영지로 모셔가려는 랜슬롯(Lancelot)에게 왕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제발 내 곁을 떠나주기를 그대에게 명하오. 그리고 그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 그대의 왕국을 전쟁과 참화로부터 잘 지켜주시오. 이제까지 내 그대를 사랑했듯이 그대를 보는 것을 이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것 같구려. 그대와 나로 인해 폐하와 기사의 꽃같은 생명이 다 저 버렸소. 그러니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 부인을 맞이하고 그녀와 함께 희락을 누리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영원하신 주님께 빌어주시오. 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말리오.

And I commaunde the, on Goddis behalff, that thou forsake my company. And to thy kyngedome loke thou trune agayne, and kepe well

* 이 연구는 2010년도 호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thy realme, frome warre and wrake, for as well as I have loved the hertofore, myne harte woll nat serve now to se the; for thorow the and me ys the floure of kyngis and knytes destroyed. And theretofore go thou to thy realme, and there take ye a wyff, and lyff with hir wyth joy and blyts. And I pry the hartely to pray for me to the Everlastyng Lorde that I may amende my mysselyvyng. (bk 21; 25-34)¹

아서 왕국의 멸망으로 그 명성과 가치를 승계할 새로운 왕국의 건설이 요청되는 즈음, 왕비는 아서 왕국의 멸망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랜슬릿에게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 통치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할 것을 명한다. 용맹만을 따진다면 그 어느 기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랜슬릿이므로 그 왕국을 전쟁과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의 귀네비어의 발언은 왕국이 왕국으로서의 건설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왕국으로 확립하려면 랜슬릿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왕권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통치자의 용맹과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인의 존재, 왕가의 확립, 계승자의 가시성 등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왕국은 안정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의 귀네비어의 발언은 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최근의 아서왕 문학(Arthuriad) 비평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0년에 발간된 『아서의 여성들』(Arthurian Women)이나 이듬해 발간된 『아서의 여성들에 관하여』(On Arthurian Women) 등의 저작들은 그때까지 소위 마이너 캐릭터로 취급되면서 경시되었던 여성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귀네비어나 이졸트(Iseult), 혹은 모르간 르 페이(Morgan le Fay) 등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연구의 지경을 넓혔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편자 텔마 펜스터(Thelma S. Fenster)가 『아서의 여성들』의 서론에서 자신의 편서의 제목인 “아서의 여성들”이라는 용어의 내적 모순성을 지적하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인물들을 그들이 속한 세계에서 “따로 분리시키고 봉쇄한다”(xx)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¹ 작품 인용은 Vinaver ed., *Malory: Works*로부터 한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이름도 잊혀져 있던 여성들을 비평적 조망의 대상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이념이 지배하고 남성들의 동성사회적(homosocial) 연대가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언행이 어떻게 구속되었는지, 혹은 그 남성분위의 사회를 구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는지 등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연구의 좋은 예는 2003년 발간된 『멜러리의 아서왕의 죽음에 나타난 젠더와 기사 공동체』(*Gender and the Chivalric Community in Malory's Morte d'Arthur*)에서 발견된다. 이 책에서 저자 도르시 암스트롱(Dorsey Armstrong)은, 멜러리 작품 속의 여성이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단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한다. 그녀는 원탁의 기사들이 자신들의 행동 강령으로 서약하는 오순절 서약(Pentecostal Oath)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약을 분석하면서, 아서왕의 기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여성 혹은 여성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소극성, 의존성이 오히려 기사공동체의 존립 근거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여성과 기사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을 공동체와 분리된 소외된 존재로 보지 않고 주체적이건 그렇지 않건간에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여성이 작품 전체에 걸쳐 편재하고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스트롱의 주장은 그 주장이 갖는 건강성과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스스로의 논지에 의해 제약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그녀처럼 작품 속에서 “반복해서 수동적인 여성성과 남성적 폭력이 교차한다”(28)고 본다면 그것은 곧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을 그녀 스스로 외면하는 셈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녀의 분석에서 모르간 르 페이나 니스웨(Nyene), 리오넷(Lyonet) 등 능동적 여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귀네비어에 대한 분석에서도 여왕이라는 지위가 갖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암스트롱의 연구에 내재한 또 다른 문제는, 멜러리의 작품이 “기사의 과업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여성적인 것에 의존한다”(72)는 분석이 오히려 탈사회적 분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아서왕의 왕국이 지닌 독특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여성들

이 갖는 힘과 역할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사도 정신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넘어 아서왕국의 정치적 구도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가령 모두에 인용한 귀네비어의 발언은 왕국의 정체성과 권위의 확립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맬러리의 작품 속에 나타난 귀네비어 왕비 자신의 삶의 여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가령, 엑스칼리버 칼을 뽑음으로써 화려하게 정계 일선에 등장했던 아서왕이지만, 그의 혈통에 대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내란의 위협에 계속적으로 시달린다. 이 때 귀네비어와의 결혼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그의 왕국이 안정기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서왕과 귀네비어의 혼인은 왕권 확립에 있어서 왕비가 차지하는 역할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왕권의 추락 혹은 왕국의 몰락에 있어서도 왕비가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그녀에 대한 비평은 주로 사랑, 불륜, 참회 등 주로 그녀의 사적인 경험,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귀네비어 왕비와 랜슬렛의 관계를 다루는 논문 중 상당수가 이 관계를 '불륜'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정신분석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적이다. 실제로 1997년 불륜을 특집의 주제로 삼은 『아서리아나』(*Arthuriana*)에서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관계가 여러 논문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들의 관계의 정치적 함의에 주목하는 논문은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귀네비어의 생각과 행동을 왕비라는 지위에 정초하여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영역 속에서도 그녀의 정치적 역할을 복원해보는 동시에 그녀의 정치적 힘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귀네비어의 분석에 동원되는 문제의식, 즉 왕국의 확립과 몰락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관점은 귀네비어의 분석에만 유효한 것일 리 없다. 본고에서는 귀네비어처럼 왕비이면서도 작품 속에서 왕비로서의 신분과 힘은 계속적으로 삭제되어 제시되는 모르간 르 페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왕국의 확립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졸트(Iseult) 왕비나 니느웨(Nineve)도 매우 흥미있는 분석의 대상이 되겠으나 본고에서는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강도에 있어서 다른 여성들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생각되는 두 여성/왕비인 귀네비어와 모르간 르 페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II

『아서왕의 죽음』에서 아서왕이 결혼은 결심하는 장면은 흥미롭게 제시되어 있다.

운명과 신의 은총으로 아서가 왕으로 선출되어 아서왕의 치세가 시작될 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그가 우서 펜드라곤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멀린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많은 왕과 군주들은 그것을 문제삼아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아서왕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다.
...

“내가 부인을 얻지 않으면 귀족들은 내가 쉬지도 못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의논하지 않고는 부인을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멀린이 “부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왕처럼 높이신 분께서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다른 이보다 마음에 두신 이가 혹시 있으신지요?”라고 말했다.

아서왕이 말했다. “내 선친 우서왕에게서 원탁을 받아 갖고 있다고 당신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 카멜라드 땅의 로데그란스 왕의 따님인 귀네비어를 사랑합니다. 이 처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하고 아리따운 분이시지요.”

In the begynnyng of Arthure, arftir he was chosyn kynge by adventure and by grace, for the moste party of the barowns knew nat he was Uther Pendragon son but as Merlyon made hit opynly knowyn, but yet many kyngis and lordis hylde hym grete were for that cause. But well Arthur overcom hem all. . . .

“My barownes woll let me have no reste but nedis I muste take a wyff, and I wolde none take but by thy counceile and advice.”

“Hit ys well done,” seyde Merlyon, “that ye take a wyff, for a man of your bounté and nobles scholde not be withoute a wyff. Now is there only,” seyde Marlyon, “that ye love more than another?”

“Ye,” seyde kyng Arthure, “I love Gwenvyvere, the kynges doughtir of Ledegrean, of the londe of Camelerde, the whyche holdyth in his house the Table Rounde that ye tolde me he had hit of my fadir Uther. And this damesell is the moste valyaunte and fayryst that I know lyvying, or yet that ever I coude fyndé.” (bk 3; 13-19)

이 인용문은 아서왕의 혈통에 대한 의혹,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서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언급이 아서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귀족들의 중용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아서왕의 부친 부제, 즉 그의 왕위의 정통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으로서 결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위기의 타결책으로 제시하는 아서왕의 제안에 멀린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왕이 부인을 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두 개의 몸을 지닌 왕이 온전한 정치적 몸(body politic)을 얻게 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가시화하는 주권의 가시화임을 보여준다. 왕의 결혼은 왕이 왕가를 이룸으로써 왕국을 건설하고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통치행위인 것이다. 결혼을 통해 아서는 더 이상 애송이가 아니라 집안을 이룬 성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게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가 있느냐는 멀린의 질문에 아서가 귀네비어라고 답하는 대목은 더욱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로맨스의 이러한 대목에서 흔히 그렇듯이 아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먼저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친이 아서왕의 선친이 갖고 있던 원탁을 지니고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서왕이 이 결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아서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더욱 직접적인 계기는 아서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선물인 것처럼 보인다. 아서왕은 귀네비어와의 결혼을 통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싶어했던 것처럼 보인다.² 이렇게 해서 그가 선택한 여성인 귀네비어와의 결혼은 아서왕에게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로더그리안스(Lodegreance) 왕은 결혼 선물로 원탁과 그 원탁에 딸린 기사 백명을 제안한다. 장인이 제공한 이 결혼 축하선물은 전적으로 아서왕에게 충성을 바칠 기사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서왕이 손쉽게 군사력을 확보하고 왕권을 확립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혼은 군사력의 확보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서왕의 부친 우서펜드라곤(Uther

² 이렇게 볼 때 멀린의 작품은 중세의 로맨스들의 중심된 주제 두 가지를 모두 작품 초기에 해결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 로맨스의 전형적 특징을 비틀고 있다. 즉 부계혈통의 복원과 사랑하는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아서왕은 귀네비어와의 결혼을 통해 작품 초반부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과의 결합이라는 로맨스의 일반적 주제는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관계로 치환된다.

Pendragon)왕이 로더그리안스에게 주었던 선물이라는 원탁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원탁은 기사 백 명을 뛰어넘을 정도의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서왕은 귀네비어와의 결혼을 통해 아버지의 유품을 반환받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아서왕이 상실했던 아버지, 즉 선조의 계보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결혼에서 결국 적통의 왕자가 생산되지 못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결혼은 아들을 얻는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결혼이라는 역설적 성격을 띠게 됨을 알 수 있다.³ 아무튼 이 결혼을 통해 아서왕은 왕가를 이루고 왕국의 안정을 얻게 된다. 로더그리안스 왕이라는 든든한 우군, 그리고 아서왕 지원 세력의 확보 등의 물리적 힘에 덧붙여, 아서왕이 우서왕의 아들이라는 계보의 복원이라는 이중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왕가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작품 속에서 귀네비어 왕비는 불임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왕비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다. 작중 인물이나 작가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귀네비어가 불임임을 말하지 않지만, 아서왕이 모고즈(Morgause)와의 불륜을 통해 모드레드를 얻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서왕과 귀네비어 사이에 후사가 없는 것의 책임은 귀네비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아마 아서왕 궁정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이다. 존 카르미 파슨즈(John Carmi Parsons) 등 중세 왕비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듯 중세 시대에 왕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후사를 얻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귀네비어 왕비는 왕비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왕비의 불임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아서왕의 왕으로서의 혈통의 연속성을 확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비록 그것이 아래쪽으로가 아니라 위쪽으로 이기는 하지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왕가의 계보의 연속성의 유지자라는 측면에서의 귀네비어 왕비의 유용성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 즉 아서왕이 군대를 이끌고 랜슬릿과 전쟁을 하러 간

³ 엘리자베스 에드워즈(Elizabeth Edwards)는 귀네비어와 원탁은 “상징적 동등성”(symbolic equivalence)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덧붙여 아서왕과 귀네비어 왕비의 결혼 이후에야 아서왕의 어머니 이그레인(Igraine)이 궁정에 와서 아서왕의 태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말한다(44). 즉 어머니의 증언은 왕의 계보를 잇는 적자로서의 아서왕의 위치를 확립해주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사이에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킨 후 귀네비어와의 결혼을 추진하려 할 때이다. 마치 클로디우스(Claudius)가 거트루드(Gertrude) 왕비와 혼인한 것을 연상시키는 이 장면—새로 즉위한 왕이 선왕의 왕비를 다시 왕비로 맞이하는 것—은 사실 중세 영국의 로맨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졸고 201). 또한 실제 영국 역사에서 발견되는 일이기도 하다(Stafford 143-49).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귀네비어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신의 남편의 부인인 동시에 아들의 부인이 됨으로써 왕가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이며 또한 무장 집단인 기사 계급이 지배층을 형성하는 아서왕의 세계에서 왕비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나 행사할 수 있는 무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힘의 행사에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반란, 그리고 그것의 정당화라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에서 왕비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셈이다. 아버지의 존재가 지워진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아서가 왕통 정립을 위해 왕비 귀네비어를 필요로 했듯이, 모드레드 역시 아버지 없이 왕위를 계승하는 자로서 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서 왕비 귀네비어를 원한다. 왕비를 갖는 자가 왕권을 갖는 자가 되는 셈이다.

무력 투쟁의 현장에서 왕비라는 존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아서왕이 로마 정복에 나서면서 만나게 되는 몽 생 미셸(Mont St. Michel)에서의 거인과 싸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유사한 이야기를 다루는 앨러리의 원전들과는 달리, 앨러리 작품에서는 거인이 귀네비어 왕비를 언급하고 그녀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Armstrong 10-17). 암스트롱은 귀네비어에 대한 거인의 욕망이 “왕으로서의 아서왕의 지위뿐 아니라 남자로서의 그의 지위에도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나아가 “아서의 기사들의 성적 지위까지도 위협한다”(Armstrong 17-18)고 설명함으로써 기사 공동체에서 남성성이 여성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로 삼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왕의 가장 큰 살아있는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인 왕비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애인과 눈이 맞아 도망을 간 것이든, 아니면 납치를 당한 것이건 간에 아무튼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 헬렌을 놓고 7년간 혈투를 벌이는 트로이 전쟁이 증명하듯이 왕비는 단지 한 여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왕의 자존심이자 힘의 상징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내적, 대외적 패권 다툼에서 귀네비어는 왕비라는 지위가 가져다

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평상시의 귀네비어는 과연 어떠한 정치적 힘, 혹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작품 말미의 ‘독사’ 에피소드에서 찾을 수 있다. 랜슬릿이 많은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불타는 질투심을 보이며 그를 내쫓던 귀네비어가 “그녀가 랜슬릿경 만큼이나 원탁의 다른 기사들도 좋아한다는 것을 길으로 드러내고자”(to shew outwarde that she had as grete joy in all other knyghtes of the Rounde Table as she had in sir Launcelot; bk 18; 15-17)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혈연 위주의 당파를 구성하기 쉬운 궁정에서 왕비가 기사의 단합과 중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왕비와 랜슬릿과의 친밀한 관계는 랜슬릿과 다른 혈족에 속하는 기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거나 혹은 패당 결속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탁과 함께 아서왕에게 왔던 귀네비어는 그 원탁을 유지시킬 책임도 있는 셈이다. 귀네비어가 “모든 기사들을” 다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연회를 계획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서왕이나 궁정이 왕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기대를 귀네비어가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기대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를 느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탕평책과 같은 의도로 계획된 연회에서 파이넬(Pinel)의 음모로 패트리즈(Patrise)가 억울하게 죽게 되자 왕비의 애초의 의도와는 반대로 기사들이 왕비의 저의를 의심하고 매도(Mador)가 공식적으로 여왕을 탄핵하게 된다. 이때 왕은 귀네비어를 변호할 적격자인 랜슬릿이 궁정에 없다는 것에 화를 내며 왕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랜슬릿 경을 그대 옆에 두지 못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यो?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랜슬릿 경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곁에 두고 있다는 것 말ियो.”라고 아서왕이 말했다.

“What aylith you,” seyde the kynge, “that ye can nat kepe sir Launcelot uppon youre syde? For wyte you well,” seyde the kynge, “who that hath sir Launcelot uppon his party hath the moste man of worship in thys world uppon his syde.” (bk 18; 35-38)

위의 발언은 궁정에서의 왕비의 역할에 귀대한 왕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왕비가 원탁의 기사들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특히 가장 강력한 기사인 랜슬

릿을 왕의 편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맡아 주기를 아서왕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궁정식 사랑의 대표로 여겨지는 랜슬릿과 귀네비어의 관계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용인되고 재가되었다. 암스트롱의 표현을 빌자면 “왕은 그들의 긴밀한 관계를 적절하고도 합당하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180). 즉 귀네비어는 원탁으로 상징되는 기사들의 동료정신, 우애, 공동체를 유지시킬 역할을 요구받았고, 랜슬릿과의 관계 역시 그러한 역할의 확장으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 실제로 랜슬릿과 귀네비어의 ‘궁정식 사랑’이 처음 언급되는 장면에서 이 둘의 관계는 에로틱한 차원 보다는 가치의 상호 보상 측면이라는 면으로 소개된다. 『호수의 랜슬릿 경에 관한 고상한 이야기』(“A Noble Tale of Sir Lancelot du Lake”)의 서두에서 랜슬릿의 “영광과 명예가 날로 증가했다”고 소개되면서 “따라서 귀네비어 왕비가 그를 다른 모든 기사보다 더 총애했고, 그도 또한 그의 인생에서 어떤 다른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Wherefore quene Gwenvyvere had hym in grete favoure aboven all other knightis, and so he loved the quene agayn aboven all other ladyes days of his lyff; bk 6; 12-14)고 언급된다. 여기서 “따라서”라는 단어는 랜슬릿의 용맹과 귀네비어의 여왕이라는 지위가 등가 교환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이들의 관계는 원탁 공동체의 유지자로서의 여왕의 정치적 역할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사랑, 혹은 욕망과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궁정식 사랑이란 결국 궁정에서, 궁정의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기사가 주군의 부인을 사랑하는 것, 특히 그 궁정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와 주군의 부인간의 이성 관계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서 왕국의 기사도 이념과 정치적 역학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랜슬릿과 귀네비어의 관계가 궁정에 아서왕 왕국의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그 중 중요한 실마리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혹은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용어의 변화에서 감지된다. 작품 초기에서 최고의 기사로서의 랜슬릿의 덕목 중 하나로 평가되던 귀네비어에 대한 사랑은 작품 말미에서는 수치스런 일로 폄하된다. 아그라벤(Agravain)은 랜슬릿을 비난하며 “랜슬릿 경이 밤낮으로 왕비와 자는 것을 보고 알면서 우리가 수치스러워하지 않다니 놀랍다”(bk 20; 17-18)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들의 관계가 왕국의 기

사도 규범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관계, 즉 간통으로 재해석됨을 보여준다. 이들이 간통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이들의 관계를 기사도의 규범 속에서 정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것인지 혹은 간통이라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다. 즉 기사도 규범에서는 여성, 혹은 여왕이 “보상을 주는 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보상이 되는”(Hill 275)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에, 귀네비어가 원탁의 기사들의 가치와 기준을 지탱하면서 원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녀와 랜슬렛의 관계는 칭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거꾸로 아서의 공정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본다면 간통으로 해석되게 되는 셈이다.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관계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역할에 의해 의미가 규정되며, 이것은 다시 여성의 몸이 정치적 해석과 타협의 내용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사실 평자들조차도 이들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데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가령 엘리자베스 에드워즈(Elizabeth Edwards)는 기사도와 사랑이라는 용어로 랜슬렛과 귀네비어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기사도 규범의 개념적 범주 속에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관계를 간통(adultery)으로 묘사한다. 학술지 『아서리아나』가 1997년 캐스톤(Caxton)과 맬러리에 관한 특집 주제로 ‘간통’을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도 랜슬렛과 귀네비어였다는 점은 이 두 연인에 대한 비평가들의 보편적 관점을 대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벌리 케네디(Beverly Kennedy)는 귀네비어가 “진실한 연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프랑스 원전에서와는 달리 맬러리는 그들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들의 “진실한 ‘우정의 관계’는 그들의 정치적 관계에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한다(“Malory’s Guenevere” 17).⁴ 재미있는 것은 근자의 많은 비평가들이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간통’이 기사도 규범에 내재한 모순의 확대이며 필연적 결과라고 보고, 귀네비어의 위치가 궁정, 혹은 기사도 공동체를 유지 혹은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막상 이들의 ‘간통’이 이후 아서왕 왕국의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이는 적고 또한 이들의 관계가 가졌을 그 이상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의 사랑이 왕국의 운명을 가름할 결정적 사건으로 보면서도, ‘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이

⁴ 적어도 그녀가 모드레드의 뒷에 걸리는 장면이 오기 전까지는 랜슬렛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의 관계가 왜 어느 순간 갑자기 간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하고 있다. 평자들은 이들의 사랑의 도덕적, 종교적 함의를 분석하거나, 혹은 이들의 관계가 정말 간통이었는지, 어느 정도 용서 가능한 것인지 등 사적인 경험의 측면에 논의를 집중할 뿐, ‘정치적 관계에 적절한’ 것이었던 관계를 ‘간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이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작품 속에서나 비평계 양쪽에서 귀네비어의 간통 이후 왕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뿐,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아그라벤과 모드레드가 이들의 관계를 문제삼는지에 대한 논의가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독자들 역시 아그라벤과 모드레드의 소동에 끌려 들어가 간통 그 이후만 볼 뿐 그들의 저의, 혹은 그 저변의 기사들의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성찰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맬러리 자신도 작품 속에서 성배 탐색을 마치고 돌아온 랜슬렛이 신과의 약속을 잊고 점점 더 왕비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아그라벤과 모드레드의 혐의 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랜슬렛이 모험을 떠났을 때 만났던 아가씨가 지적하듯이 이들의 관계는 세상사람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고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전보다 더욱 자주 만났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두 사람을 잡으라는 아서왕의 명령에 잠복해 있던 아그라벤과 기사들조차도 이들의 간통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이들의 관계는 그저 덮어질 수도 있을 것이었다. 케이 해리스(E. Kay Harris)가 지적하듯이 아서왕이 요구했던 이들의 불륜의 물적 증거를 아그라벤 일당이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왕비에게 굳이 화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아서왕이 귀네비어를 ‘결투에 의한 재판(trial by arms)’에 넘겼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정치적 함의, 그리고 왕국에서의 왕비의 정치적 힘과 한계를 암시한다.

⁵ 가령 벡시 테일러(Betsy Taylor)는 순수한 연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한 침대에 있게 되었는지’(abed) 그 심리적 동인에 집중한다. 로버트 스톨지스(Robert Sturges)는 맬러리가 이들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고 복원 불가능한 과거성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비벌리 케네디(Beverly Kennedy)는 랜슬렛이 자신의 관계에 대해 충심으로 회개한 ‘진실한 기사’였다고 말하고 맬러리는 랜슬렛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Adultery”).

앞서도 말했듯이 작품 초기의 귀네비어의 정치적 힘의 근거는 그녀가 왕에게 직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아서왕과 귀네비어의 결혼을 그리는 장면에서 귀네비어는 계속적으로 원탁과 연결되어 등장하고, 원탁으로 상징되는 왕의 부계 확립에 힘입어 아서왕은 왕권을 확립하고 왕국의 안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귀네비어와 랜슬릿의 관계가 문제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왕비의 그러한 힘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제 필요한 것은 왕의 자손, 후계자이다. 왕권 확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고 권력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왕비는 이제 상속자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힘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귀네비어 왕비는 불임이다. 페기 맥크래켄(Peggy McCracken)은 12세기경에 이르면 불임의 왕비를 간통으로 고발하는 것이 중세 프랑스 문학에서 일종의 내러티브 관습이 되었다고 말한다. 왕비 자체가 확고한 권력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왕비는 왕비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제거시키려는 시도에 매우 불안정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성적 일탈은 가장 큰 비난의 근거가 되었는데, 불임인 왕비는 권력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난에 가장 취약했기 때문이다 (McCracken 10). 그녀의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중세 프랑스 문학의 내러티브 관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문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유럽 국가 전체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Stafford, *Queens* 60-92). 이렇게 볼 때 불임인 귀네비어가 랜슬릿과 공인된 연인 관계라는 것은 귀네비어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아서왕이 귀네비어 왕비를 화형대에 보냈던 것은, 귀네비어 왕비에 대한 비난과 탄핵은 왕권 안정을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결투에 의한 재판이라는 공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왕비의 순결성은 왕의 권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왕비의 간통은 왕권의 위기의 원인 혹은 상징으로 제시되는 일이 많았다 (McCracken 52-54). 가령 830년 경건왕 루이의 부인인 주디쓰 왕비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공격한 것은 부왕을 제거하고자 했던 왕비의 양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재판하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그녀의 맹세와 함께 누명이 벗겨지는 사건은 왕이 그 아들들과 화해하고 반란의 주도자들을 투옥시킨 이후에 이루어졌다. 경건왕의 주권 회복과 왕비의 명예회복은 동시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왕비의 불륜이란 곧 왕이 왕비의 몸조차 지킬 능력이 없다는 무능력자라는 비난으로 이

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고 왕비의 행위는 곧 남편의 명성과 연결되었다(Parsons, "Loved Him—Hated Her" 283-84). 그러므로 왕비의 불륜에 대한 공격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왕비의 명예와 왕의 명예의 불가분성은 역의 관계에서도 성립되었다. 왕에 대해 직접 공격할 수 없을 경우 왕비를 비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맬러리가 살던 시대의 왕이었던 헨리 6세의 왕비 앙주의 마가릿(Margaret of Anjou)에게서 발견된다. 그녀는 결혼 후 8년이 지난 뒤 아들 에드워드를 낳음으로써 상속자를 생산한 왕비로서 권위를 누릴 입지를 가까스로 확보하였으나, 요크가의 권력이 왕위 계승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녀는 임신을 통해 인기도 권위도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에드워드는 사실상 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는 왕비로서 공적인 존경을 누릴 수 없었다(Lee 191-92). 이것은 왕비 개인에 대한 반감에 근거한 점도 있었겠지만 왕을 직접 비난하는 것에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왕비를 비난하는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왕비에 대한 비난은 왕에 대한 비난의 대안이 되었다(193). 왕비의 성적 순결성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재구성되고, 정치적 타협 혹은 투쟁의 계기이자 장(site)이 되며 그 자체의 진실성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볼 때 가웨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그라벤과 모드레드가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지나치게 친밀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왕비의 간통에 대한 고소는 사실 여부를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간 르 페이가 귀네비어를 제거하고자 마법의 빨간을 아서왕 궁정에 보내려 한 것 역시 왕비의 간통 폭로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웨인이 귀네비어와 랜슬렛의 관계를 덮고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이들이 순수한 관계임을 확신해서라기보다는 왕권의 안정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서왕이 귀네비어를 화형대에 올린 행위가 나름으로는 그녀에 대한 비난을 공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결투에 의한 재판'이라는 방식이 아서왕 궁정의 뿌리깊은 문제인 혈족에 근거한 당파간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음을 아서왕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에 아서

왕 왕국의 비극이 있다.

에당초 아그라벤과 모드레드 등이 귀네비어의 간통을 문제삼을 때에 그 목표물이 랜슬릿인지 왕비인지는 분명치 않다. 후에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모드레드는 왕위 찬탈을 염두에 두고 첫 단추로서 왕비를 탄핵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드레드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한 후 귀네비어를 자신의 왕비로 삼으려 했던 것에서도 보이듯이 왕비를 소유한 자가 곧 왕국을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왕국에서의 랜슬릿의 거의 독점적인 명성과 지위를 무너뜨리고자 왕비의 간통을 공식적으로 문제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왕, 왕권, 왕권의 상징으로서의 왕비, 왕비의 가장 내밀한 육체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은, 왕비의 불륜의 비밀을 획득하는 것이 곧 왕권 획득으로 다시금 역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McCracken 86). 왕비의 간통에 대한 고발 뒤에는 정치적 숙적관계가 자리한다. 아그라벤과 모드레드의 정치적 야심이 여왕에 대한 공식적 탄핵의 진정한 동인이며 궁극적으로는 왕국 붕괴의 원초적인 원인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네비어 자신이나 평자들은 모두 귀네비어와 랜슬릿의 관계가 왕국멸망의 원인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인다. 왕이 죽고 왕국이 멸망한 후 수녀원에 들어간 귀네비어는 자신을 찾아온 랜슬릿에게 자신들의 사랑 때문에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자책한다. 이에 대해 랜슬릿 역시 반박하지 않고 그 비난을 수용한다. 작가 자신이나 독자들도 모두 이러한 귀네비어의 발언에 크게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드레드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왕비에 대한 그의 비난은 여전히 망령처럼 여왕 자신과 독자들의 마음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서왕 왕국의 멸망의 시작을 모드레드의 야심에서 찾기보다는 귀네비어의 사랑/간통에서 찾고 싶어한다. 어찌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여성의 정치적 파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다. 적극적 의미에서건 소극적 의미에서건 왕비의 정치적 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곧 모순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아서왕 왕국의 붕괴가 귀네비어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귀네비어가 아무리 부정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왕국을 멸망시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 왜 아서왕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찾을 때에 귀네비어의

사랑/간통만을 언급하고 모드레드의 야심을 지워버리려 하는가? 아서왕이 죽는 것은 결국 믿었던 대리인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 인물들은 왜 이에 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남성들의 연대(homosocial community)로 규정되는 아서왕국의 기사도 이념을 이상화하고 아서왕의 궁정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보면서, 동시에 그 왕국이 남성들간의 권력다툼, 쟁파간의 갈등 때문에 멸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즉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 그리고 다시 아담을 유혹했던 이브와 귀네비어를 연계시키고 그 이브/귀네비어가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보는 것이 남성 이념에 훨씬 더 편안한 답이라는 것이다. 귀네비어의 자책은 이러한 남성 연대의 이념의 내면화의 징후이거나 혹은 귀네비어에게 비난을 떠넘기려는 작가의 은밀할 욕구의 반영이다. 왕국의 멸망 후 왕비가 수녀원에 들어가 참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녀를 이브와 마리아의 이분법 속에 편안히 들어앉히려는 중세 남성 공동체의 은밀한 욕구의 산물이다. 독사와 사건이 왕국의 붕괴의 단초라는 점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귀네비어는 왕국에게 독사과를 먹이는 이브로 환원되고 궁정 내의 정치 현실에 엄존하는 쟁파간 갈등은 내러티브의 초점에서 증발해버린다.

III

귀네비어는 여성 중에서도 왕비라는 범주 안에서 비교적 편안히 규정할 수 있는 반면, 모르간 르 페이는 여성이라는 제 4의 신분(fourth estate) 속 그 어느 곳에도 편안히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⁶ 공주로 태어났고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상류층의 왕가의 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각인된 그녀는, 왕비라기보다는 수녀원에 들어가 온갖 마법을 익히고 그 힘을 휘두르는 마법사의 모

⁶ 사실상 로맨스 장르에서 여성의 행동들을 어떤 체계 속에 편입하여 보기는 어렵다. 엘리자베스 아치볼드(Elizabeth Archibald)가 지적하듯이 로맨스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은 아마 그 기사의 보상이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다(157). 그런데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습에 가깝다. 그녀는 여러 명의 애인을 갖고 있고 심지어 랜슬릿도 애인으로 두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고즈(Morgause)처럼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두지는 않는다. 아서왕의 왕권을 갖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 장면에서는 그를 보살피고 치료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적으로 탐욕적이며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고 또한 질투심이 많은 부정적 모습을 모두 지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살피고 치료하는 긍정적 여성성을 지닌 모순된 양면을 지닌다.

평자들은 이러한 모르간을 어떤 한 범주에 집어넣고 설명하려 시도한다. 예를 들어 모린 프라이즈(Maureen Fries)는 아서왕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들을 여성 영웅(female hero), 여주인공(heroine), 반영웅(counter-hero)으로 분류하면서 그녀를 반영웅의 범주에 집어넣었다. 한편 도널드 호프만(Donald Hoffman)은 이 분류를 비판하면서 주권자(sovverign), 전사(warrior), 다산성(fertility)으로 분류하고 모르간을 이 중 다산성에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귀네비어와 모르간이 은밀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며 서로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여러 분류들에도 불구하고 모르간은 그 어느 범주에도 말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세밀히 따져보면 모르간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여성에 대한 여러 이항 대립항들 중 같은 계열의 것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는 여러 항들을 넘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르간의 규정불가능성은 모르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로맨스에서의 여성 해석의 틀의 문제인가?

모르간이 기사도 규범의 기준에서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은 그녀와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우선 왕비라는 지위 때문에 기사 공동체에서 흠모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궁정식 사랑의 공식에서 그녀는 예외적인 존재이다. 모르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 제시된다. 멜러리의 책에서 모르간을 사랑하는 남성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탐하는 모르간에게 “차라리 내 목을 자르고 말겠다”고 대항하는 고아 알렉산더(Alexander the Orphan)의 완강한 반대에서 드러나듯 모르간은 남성들의 혐오의 대상이다. 암스트롱의 도식에 의하면 아서왕 기사도 규범은 수동적이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모르간의 행동은 불가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아콜론(Accolon)을 애인으로 삼고 또 랜슬릿을 바라보며 애인을 삼고 싶어하는 모르간의 모습은 성적으로 탐욕스러운(sexually voracious) 여성의 전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마법에 능통하고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힘을 의심스러운 초자연적 기원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남성 본위의 기사 공동체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성과 공격성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시선, 그리고 이것을 성적 탐욕으로 다시금 전이시키려는 중세 로맨스의 낮은 내러티브 패턴을 보여준다.

로맨스의 패턴에서는 매우 익숙하지만 현실 혹은 로맨스의 궁정의 기사도 규범에서는 완전히 일탈한 듯 보이는 이러한 모르간의 행동에 대한 기사들의 반응은 무시와 배척이다. 기사들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한 채 단지 그녀의 행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그녀의 행위의 의미를 애써 억압하려 한다. 그녀의 행동이 아서 왕국이나 그녀 개인의 가정에 끼치는 중대성에 건주어 볼 때 그녀는 작품 속에서 매우 산발적으로 그리고 파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작중 인물들과 작가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골치 아프게 여기고, 될 수 있으면 생각과 행동 양쪽에서 그녀를 배제시키고자하는 증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르간을 아서의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이렇듯 모순되고 일탈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행위 속에서 작으나마 일정한 이해의 가능성이 어렵פות하게 떠오른다. 그녀가 아서왕의 왕권을 노리며 획책하는 행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은 제 4권 『니느웨와 모르간 르 페이』(“Of Nineve and Morgan le Fay”)에서이다. 모르간이 아콜론을 대리인으로 삼아 아서에게 훔친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아서의 목숨을 노리는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서와 모르간이 남매관계임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아서가 아콜론과의 결투 후 수도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모르간이 그의 방에 들어와 칼을 훔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왕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아무도 감히 당신 누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72)였다. 즉 역설적이게도 모르간이 왕의 누이이기 때문에 배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멀린이 죽기 전에 아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그의 “칼과 칼집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여성에 의해 도둑맞을 것”(58)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적이다. 모르간이 자신의 목숨과 왕좌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배신감과 복수심에 가득 찬 아서는 회한에 가득 차 “내가 그녀를 모든 내 친척 중에 가장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내 부인이나 모든 내 친척보다 그녀를 더욱 믿었다”고 말하

기 때문이다. 모르간은 자신의 누이인 동시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우군 중 하나인 우리엔(Uriens) 왕의 부인이었으므로 아서의 이러한 발언은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의 모르간의 아서 암살 기도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그녀는 혈족, 더 구체적으로는 왕족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반란과 배신의 가능성을 예시하는 인물이다.

아서의 궁정에서 혈족이 점차 과당으로 성격이 변질되어 가면서 원탁으로 상징되는 공동체적 성격은 점차 퇴색하고,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과당 간 헤게모니 싸움이 전면에 등장한다. 가웨인 가문과 랜슬렛 가문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이들의 선조 혹은 혈족이 연루된 살해와 보복이 간헐적으로 그러나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혈족을 중시하는 이들의 가치관이 결국 아서왕국의 와해를 촉진시킨다는 점은 이미 여러 비평가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토록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혈족 내에 조차도 갈등이 존재하며 이것이 결국은 왕국의 왕조 자체에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서왕 궁정의 기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실제로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가웨인의 형제이면서도 랜슬렛과 더 친밀한 가레스(Gareth)가 단합된 혈족의 모습과는 유리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조차도 가웨인이나 아서왕, 그리고 랜슬렛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수용되고, 결국 가레스의 죽음이 왕국의 분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레스는 역설적으로 혈족의 단합을 촉진시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가웨인과 아그라벤 등이 랜슬렛과 귀네비어의 관계를 놓고 의견 다툼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형제 살해 시도로 이어질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혈족은 최후의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경우 자신의 목숨에 대해 복수를 행할 자로 믿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르간은 혈족의 단합이라는 이러한 아서왕국의 지배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서가 그녀를 부인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귀네비어와의 결혼으로 왕권 확립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귀네비어는 왕권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누이 모르간이 더욱 믿을만한 존재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영국 역사에서 왕의 가장 큰 정적이 왕비였던 일이 드물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아서의 발언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왕권 경쟁에서 왕족 자신이 왕의 가장 큰 정적이 되는 것은 어떤가? 왕의 아들, 혹은 조카가 반란을

일으키는 일은 아서왕국에서 모드레드의 반란이 극적으로 보여주듯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매우 흔한 일이다. 그렇다면 왕비보다 모르간을 더 믿었다는 아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모르간이 여성이기에 처음부터 왕권 경쟁의 적수가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그녀의 ‘소유주’라 할 수 있는 남편 우리엔 왕이 아서의 강력한 우군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더욱 아서의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⁸ 그런데 모르간은 여성, 왕족 여성에 대한 이러한 전제를 정면으로 전복한다. 그녀는 여성의 정치력, 왕권 획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왕국의 논리를 몸으로 반박한다. 작품 속에서 모르간은, 여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약하며 정치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의 맹점을 파고들고 그 허상을 폭로한다.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하는 장면은 여성의 정치적 야심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⁹ 이렇게 볼 때 모르간의 반란 음모는 아서 왕국의 두 전제—여성에게서 정치적 주체성을 배제하고 남성의 소유물로서만 보는 것, 그리고 혈족은 항상 믿을만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파괴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르간은 아서왕 기사들에게 정녕 이해불가능한 존재, 마귀같은 존재이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모르간을 현장에서 덮친 우웨인은 “이 땅의 마귀가 나를 낳았다보다”(71)고 탄식한다. 배에서 자신을 마법에 걸었던 아가씨들을 염두에 두며 아콜론이 탄식했던 “그녀들은 여자가 아니야, 마귀야”(63)라는 말은, 사실 그 모든 일을 조종했던 모르간을 놓고 아서왕의 기사들이 외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위협적으로 제시되었던 모르간의 반역의 파괴성은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드물어지고 또한 덜 위협적으로 바뀐다. 랜슬릿을 납치해서 감금하거나 트리스트람(Tristram)을 통해 마법의 빨 잔을 보내어 왕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 모르간은 몇 차례 왕국 분열을 위한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들은 모두 실패

⁷ 실제로 영국 역사에서 왕비가 왕과 정적이 되는 경우는 많이 발견되지만 왕의 누이가 왕과 정적이 되어 역사에 등장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⁸ 사실은 모르간이 우리엔의 아내이기 때문에 신임을 받았다고 보다는, 우리엔 왕이 모르간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서의 신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멀린이 원탁의 빈 자리를 채울 기사 중 하나로 우리엔 왕을 아서에게 추천할 때도 우리엔 왕이 아서의 누이의 남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59).

⁹ 하이디 브루어(Heidi Breuer)는 모르간이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려한다는 점에서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악의 핵심에는 어머니 역할의 거부”가 있다고 주장한다(113).

하거나 그녀를 ‘마녀’로 치부하는 기사들에 의해 의미가 축소된다. 여기서 기사들이 모르간을 마녀로 간주한다는 것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모르간을 마녀로 규정하는 것은 강력한 여성,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힘은 마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모르간을 초인간, 혹은 초자연적 존재로 만듦으로써 여성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모르간을 마녀로 규정하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녀를 마녀로 규정할 때 비록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녀를 주변화하고 봉쇄할 수 있다. 마법의 뿔 잔 에피소드가 보여주듯이 그녀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일정한 정도로 진실을 드러낼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의 불완함을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사들은 이 뿔을 보낸 자가 모르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법의 뿔 잔이 드러내는 진실을 부정한다. 기득권 세력인 기사들의 이익과 배치될 때, 모르간이 마녀라는 주장은 편리하게 이용되는 셈이다. 현실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여성을 초자연의 영역으로 배치시키는 낯익은 전략이 모르간에 대한 기사들의 성격 규정에서 다시금 드러난다.

그렇다면 작품의 마지막에서 아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르간이 그를 맞이하는 장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뮐러리의 독자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렵게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한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은 연대기 전통에서 제시되었던 모르간의 모습을 뮐러리가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모순이라는 점에 많은 비평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왕국의 성립과 와해라는 관점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의미가 드러난다. 즉 이제까지 모르간이 강력한 인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해체하거나 전복시킬 아서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왕국이 붕괴하고 그녀의 정적 아서가 죽는 상태에서 그녀의 힘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다시 여성에 대한 왕국의 기대에 순응하여, 보살피고 치료하는 여성으로 환원된다. 파괴적 힘으로 인식되던 그녀의 마법은 아서의 치유를 위해 사용되리라고 기대된다. 이제 그녀는 아서를 보살피는 순치된 누이로 제시되는 것이다. 무릎에 머리를 누이는 아서 왕에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꾸물거리고 내게 오지 않고 있었느냐?”고 묻는 모르간의 모습은 사실 누이 되기보다는 아서가 한 번도 그 품에 제대로 안긴 기억이 없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

에 더 가깝다. 작품 속에서 그녀의 친 아들들에게 따뜻한 모성을 한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모르간은 이 순간 어머니의 원형적 모습을 재현한다.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한껏 과시하던 강력한 모르간은 사라지고 어느덧 아들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이미지 안으로 모르간이 흡수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서왕의 사후에 남은 무주공산의 영국 땅에 대한 지배권을 모르간이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함을 뜻한다. 여성은 왕권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 왕국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는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모르간의 이 뜻하지 않은 변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무리 왕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성은 왕 옆에서 보좌하거나 동행할 수는 있지만 왕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은 왕을 보살피고 보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15세기 영국 맥러리의 시대의 지배적인 정서였으리라는 점이 작품 말미의 모르간의 이 예기치 못한 변신에서 감지된다. 모르간의 모순된 삶은 여성, 왕비, 여왕의 긍정적 역할과 현실적인 힘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없었던 맥러리 자신이나 혹은 그의 시대의 뒤틀려진 여성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은 모름지기 이브거나 마리아여야 마음이 편안하던 시기에 모르간이 태어났던 것이다. 왕의 딸로 태어나 왕의 부인이 되었고 동생 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나 정작 자신은 왕은 되지 못한 모르간을 보며, 왕의 딸로 태어나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왕의 부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했던 요크가의 엘리자베스(Elizabeth of York)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그녀의 선택은 그녀 개인의 것이었을까 혹은 그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일까.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맥러리의 시야는 저 멀리 밝아오는 16세기의 여명까지는 품지 못하는 것일까. 동일한 이름으로 왕의 딸로 태어나 결국은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로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의 거리가 어쩌면 셰익스피어와 맥러리의 작품 세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지도 모른다.

주제어 | 여성, 왕비, 왕국, 귀네비어, 모르간, 아서왕, 랜슬렛, 맥러리

인용문헌

- 최예정. 「중세 영국 로맨스에 나타난 왕비의 회임의 의미: 『고씨 경』, 『에델스턴』, 『투르 백작』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16 (2009): 171-212.
- Archibald, Elizabeth. "Women and Romance." *Companion to Middle English Romance*. Ed. Henk Aertesen and Alasdair A. MacDonald. Amsterdam: VU UP, 1990. 153-169.
- Armstrong, Dorsey. *Gender and the Chivalric Community in Malory's Morte d'Arthur*. Gainesville: U of Florida P, 2003.
- Breuer, Heidi. *Crafting the Witch: Gendering Magic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ngland*. New York: Routledge, 2009.
- Edwards, Elizabeth. "The Place of Women in the Morte d'Arthur." *A Companion to Malory*. Ed. Elizabeth Archibald and A. S. G. Edwards. Cambridge: D. S. Brewer, 1996. 2000. 37-54.
- Fenster, Thelma S., ed. *Arthurian Wome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0.
- Fries, Maureen. "Female Heroes, Heroines, and Counter-Heroes: Images of Women in Arthurian Tradition." Fenster 59-76.
- Harris, E. Kay. "Evidence Against Lancelot and Guinevere in Malory's *Morte Darthur*: Treason by Imagination." *Exemplaria* 7.1 (1995): 179-208.
- Hill, Sarah. "Recovering Malory's Guenevere." *Lancelot and Guenevere: A Casebook*. Ed. Lori J. Walter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267-277.
- Hoffman, Donald. "Guenevere the Enchantress." *Arthuriana* 9.2 (1999): 30-36.
- Kennedy, Beverly. "Adultery in Malory's *Morte d'Arthur*." *Arthuriana* 7.4 (1997): 63-91.
- _____. "Malory's Guenevere: A 'Trew Lover.'" Wheeler and Tolhurst 11-34.
- Lee, Patricia-Ann. "Reflections of Power: Margaret of Anjou and the Dark Side of Queenship." *Renaissance Quarterly* 39.2 (1986): 183-217.
- McCracken, Peggy. *The Romance of Adultery: Queenship and Sexual Transgression in Old French Literature*.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8.
- Parsons, John Carmi. "Ritual and Symbol in the English Medieval Queenship to 1500." *Women and Sovereignty* 7 (1992): 60-77.
- _____. "'Loved Him—Hated He'": Honor and Shame at the Medieval Court." *Conflicted Identities and Multiple Masculinities: Men in the Medieval West*. Ed.

- Jacqueline Murray. New York: Garland, 1999. 279-298.
- Stafford, Pauline. *Queens, Concubines and Dowagers: The King's Wife in the Early Middle Ages*. London and Washington: Leicester UP, 1983, 1998.
- _____. "The Portrayal of Royal Women in England, Mid-Tenth to Mid-Twelfth Centuries." *Medieval Queenship*. Ed. John Carmi Parsons. New York: St. Martin's, 1998. 143-68.
- Sturges, Robert S. "Epistemology of the Bedchamber: Textuality, Knowledge, and the Representation of Adultery in Malory and the Prose Lancelot." *Arthuriana* 7.4 (1997): 47-62.
- Taylor, Betsy. "Malory's Launcelot and Guinevere *abed togydirs*." *Words and Wordsmiths: A Volume for H. L. Rogers*. Ed. Geraldine Barnes and Harold Leslie Rogers. Sidney: Dep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Sidney, 1989. 137-146.
- Vinaver, Eugène, ed. *Malory: Works*. Clarendon: Oxford UP, 1971.
- Wheeler, Bonnie, and Fiona Tolhurst, eds. *On Arthurian Women: Essays in Memory of Maureen Fries*. Dallas: Scriptorium, 2001.

ABSTRACT

Woman and Kingdom: Guenevere and Morgan le Fay in the *Morte d'Arthur*

Yejung Choi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portrayal of Guenevere and Morgan le Fay in Malory's *Morte d'Arthur*. Both women are represented as a queen and thus have a role to play in the establishment of a kingdom and a king's sovereignty. However, most critics, as well as the characters in the work, seem not to be conscious of their role and power. This essay argues that Guenevere and Lancelot's love is acceptable only as part of court politics, which expects the queen to contain otherwise menacing knights in the court. And the dissolution of the Arthurian kingdom is attributed to their adulterous relationship since the queen's political and symbolic power have to be neutralized. In concealing the political dimension of queenship, the work reveals hidden patriarchal desire of Arthurian society, which places Guenevere in the familiar binary opposition of Mary and Eve. The same patriarchal desire is also found in the representation of Morgan le Fay. She embodies seemingly incompatible natures of the feminine. In the earlier part of the work she is a dangerous traitress although she is the nearest kin to Arthur and the wife of a faithful ally: she is diabolical, sexually voracious, and politically aggressive. When Arthur meets his death, however, she plays a role of caring, loving mother. This essay argues that such paradox originates from the assumption that a woman may become a queen, but not a king.

Key Words | woman, queen, kingdom, Guenevere, Morgan, King Arthur, Lancelot, Malory

원고 접수 2010년 12월 30일 | 심사 완료 2011년 1월 17일 | 게재 확정 2011년 1월 17일